

# 광주·전남 잇단 자녀 학대·살해 ‘끔찍한 세상’

이웃말 살해 사건 친모 가담  
방화로 3남매 숨지게 하고  
동거녀 5살 아들 폭행 실명 등  
끊이지 않는 부모들 때문 범죄  
처벌 강화 개정안은 국회 계류  
사회적 안전망 확충 서둘러야

광주·전남에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패륜범죄가 잇따르면서 지역을 넘어 전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가족 해체(이혼)와 이질적 가족 재구성(재혼) 확산 등의 영향으로 자녀 관리 소홀은 물론 생경경시 풍조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일 광주동부경찰 등에 따르면 중학교를 입학한 A(13)양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무안군 농로 인근 차안에서 손잡

아 기다리던 수학여행을 이틀 앞두고 계부 김모(31)씨에 의해 목 졸려 숨졌다. A양은 계부 김씨가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진정을 냈고, 이에 양심을 품은 김씨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A양을 목졸라 죽인 것이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A양의 친엄마인 유모(39)씨도 A양이 숨질 당시 차량에 타고 있었고, A양의 시신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하고 집으로 돌아온 자신에게 “고생했다”는 말까지 했다고 진술해 주변을 경악케 했다. 하지만, 유씨는 김씨 혼자 범행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양에 대한 김씨 부부의 공동 범행과 함께 학대정황까지 드러남에 따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양의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지면서 SNS 등을 통해 김씨 부부의 잔혹한 범행에 대한 엄벌과 함께 A양을 추모하는 글들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광주에선 지난 2017년 12월 31일 3남매(5개월 된 딸과 네 살·두 살짜리 아

들)가 엄마의 방화로 짧은 생을 마쳤다.  
엄마 정모(23)씨는 어린 아이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다가 하면, 아빠(22)는 4시간 넘게 아이들만 집에 놔두고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는 등 사실상 아이들을 방치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들은 생활고에 따른 양육문제 갈등 등으로 방화사건 발생 4일 전에 이혼했다. 정씨는 아이들을 보낼 보육원 등을 알아본 뒤 중증장애 상태에서 끔찍한 방화 범죄를 저질렀다. 정씨는 결국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2017년 2월 광양에서는 20대인 강모(26)씨 부부가 둘째 아들(2)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붙잡혔다. 강씨 부부는 2014년 11월 아들을 죽인 뒤 태연하게 생활을 하다 둘째 아들이 보이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지인의 신고로 2년 3개월 만에 범행이 탄로나다. 경찰은 둘째의 시신을 찾기 위해 대규모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아직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2017년 목포에선 친엄마의 목인 아래 5

살짜리 어린이의 왼쪽 눈이 실명까지 되는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B(5)군은 친엄마(38)의 동거남 이모(29)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팔이 부러지고 왼쪽 눈을 실명했다. B군의 친모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묵인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B군은 “이씨에게 맞을 때 엄마를 걱정해 고통을 참았다”고 말하는 등 비정한 친엄마를 마지막까지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변을 눈물짓게 했다.  
전문가들은 끊이지 않는 친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살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선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마련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 상 존속살인의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비속살해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실제 전국을 떠돌아다녔던 고준희양 사건, 원영이 사건 등 끔찍한 아동 학대·살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에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줬다며 호들갑을

떨지만, 일정시간이 지나면 별다른 개선 없이 묻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도 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대·살인 등을 예방하기 위해 비속살해에 대한 처벌을 존속살해 처벌(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 최소 7년 이상 징역)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수년째 계류중이다.  
정승아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최근 아동 범죄의 원인은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가족의 해체, 이질적인 가족의 재구성 단계에서 발생하는 요인들이 많은 것 같다”며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더욱 많은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양영숙 광주YWCA솔빛타운시설 소장은 “남의 가정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동 학대에 대해 유심한 관찰이 필요하며 아동들이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택배 등 상습절도 20대 검거

광주남부경찰은 1일 자신이 예전에 살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택배를 훔치는 등 남구 일대에서 10여 차례 절도행각을 벌인 김모(26)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29일 새벽 2시에 남구 남부주월동 A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보관 중이던 B(여·24)씨의 6만 5000원 상당 바지 2벌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져가는 등 지난 2월부터 지난해 26일까지 남구 일대에서 9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과거 A아파트에 살았던 김씨는 택배가 보관된 장소를 사전에 알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담보물 가치 부풀려 받은 대출 대법 “대출금 전부 사기 이득액”

담보물 가치를 부풀려 대출을 받은 경우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대출금을 초과한 금액이 아니라 대출금 전부에 대해 사기 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5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임씨는 2012년 6월 16억 5000만원에 산 토지를 26억 5000만원에 샀다고 허위로 꾸민 매매계약을 은행에 제출한 뒤 이 토지를 담보로 15억 9000만원을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훔친 차 3대 바꿔타며 내달 질주

○...훔친 차량 3대를 바꿔 타는 수법으로 8시간 동안 전북 일대를 질주하던 10대 3명이 경찰과 추격전 끝에 쇠고랑.  
○...1일 전북군산경찰에 따르면 무면허인 A(17)군 등 3명은 지난 30일 새벽 4시 35분께 군산시 자곡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투싼을 훔쳐 몰고갔다. 김가에 버리고 그 랜저와 K5를 차례로 훔쳐 군산-전주-김제 등을 운전하고 돌아다녔다는 것.  
○...A군 일당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는 등 경찰과 도심 추격전을 벌이다 이날 오후 1시께 군산의 한 사거리에서 붙잡혔는데, A군은 경찰조사에서 “차를 운전하고 싶었다”고 진술.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목포~부산 오가며 지극정성 동생 돌봤는데...

## 조현병이 불러온 비극...친누나 살해

부산에서 조현병을 앓는 50대 남성이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봐온 친누나를 살해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부산사하경찰은 1일 살인혐의로 서모(5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서씨는 지난달 27일께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61)를 집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평소 서씨를 관리해온 사회복지관 직원은 지난 30일 서씨와 친누나가 연락되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다가 불이 꺼진 채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112로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출입문을 강제로 열었더니 서씨 누나는 안방에 엎드린 채 처참한 모습으로 숨져 있었다.  
경찰은 “서씨가 누나 살해 후 시신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서씨는 30여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왔으며,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미혼으로 살아왔다. 서씨는 2017년 아버지 죽음으로 부모가 모두 사망한 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원래 살던 목포를 떠났다가 그해 부산 한 병원에 강제입원한 이후 큰 누나의 보살핌을 받아왔다.  
2남3녀 중 장녀였던 큰 누나는 주거지인 목포와 부산을 오가며 넷째인 서씨를 돌봐왔다. 목포에 있을때 걱정스러운 마음에 반찬을 만들어 동생에게 수시로 보내기도 했다는 게 주변사람들의 말이다. 사건 발생 사흘 전인 지난달 24일에도 누나는 동생이 반찬은 먹지 않고 밥만 먹는다’는 소식에 부산으로 달려왔다 결국 잡념을 당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노동절 광주대회 1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2019세계노동절 광주대회'에서 민주노총 광주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노동법 개혁 지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변호사시험 합격률 서울대 80.9% 최고 전남대 40.4%로 전국 평균에도 못미쳐

올해 초 치러진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로스쿨)의 합격률이 80%대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는 전국 로스쿨 평균에도 못미치는 합격률을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1일 법무부가 공개한 로스쿨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통계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 합격률이 80.9%로 전국 25개 로스쿨 중 가장 높았다. 서울대는 올해 188명이 응시해 152명이 합격했다.

지난해 열린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서울대 합격률은 78.7%로 가장 높았다. 합격률 2~3위를 놓고선 고려대와 연세대가 경쟁하고 있다.  
올해 시험에선 서울대 다음으로 고려대(76.4%), 연세대(69%), 성균관대(68.8%), 서강대(65.57%) 순으로 합격률이 높았다. 지난해 2·3위는 각각 연세대(73.4%)·고려대(72.0%)였다.  
경희대(63.8%), 이화여대(62.5%), 영

남대(61.2%) 합격률도 60%를 넘어섰다.  
전국 평균 합격률(50.8%)을 웃도는 대학은 한양대(59.2%), 한국외국어대(54.9%), 서울시립대(53.9%), 중앙대(53.4%) 등을 포함해 모두 12곳이었다.  
반면 합격률이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로스쿨은 부산대(49.1%), 아주대(46.2%), 인하대(45.8%), 경북대(45.5%), 전남대(40.4%) 등의 순이었다.  
전북대(35.6%), 동아대(31.6%), 충북대(37.3%), 제주대(28.1%) 등 5개 학교는 20~30%대 합격률을 보였다. 올해는 원광대 합격률이 23.5%로 가장 낮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어머니 간병하다 살해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광주교법 형사2부(교법판사 김무신)는 “어머니를 간호하다가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2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여주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53)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허반신 장애와 만성적인 척추 질환, 우울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던 어머니 B씨의 병시증을 1년 반 동안 홀로 해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A씨는 이날 어머니가 약을 과다 복용하고 “아파서 살기 싫다. 여기가 어디냐”며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자 어머니를 질식해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어머니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형법상 존속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남구 봉선동(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405㎡(122,51평) 건물 : 551,94㎡(166,96평)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8억5천 상가,교회 이용적합, 다가구포함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1686,50㎡(510평) 건물:3,000,80㎡(907,74평)  
지상2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 (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55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434,44㎡(131,4평) 건물: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55억  
이마트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삼거동  
토지:4556㎡(1378평) 건물: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40억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5700㎡(1700평) 건물:6500㎡(1900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130억  
건물2동, 신발적용 350베드 가능 요양원 40베드 별도, 주차장넓음

**토지**

- ★ [토지] 광주 북구 각화동(일반상업지역)  
토지:1540㎡(465,85평) 건물:650,94㎡(196,91평)  
매매가:80억 도로점, 투자적합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 토지:5,385㎡(1629평) 매매가:60억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분할가능
- ★ [토지] 여주시 주삼동 - 토지:9,157㎡(2770평) 매매가:50억  
주동사거리 메인코너 위치
- ★ [토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경매**

- ★ [의료시설]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토지:1806,2㎡(546,4평) 건물:2842,87㎡(860평) 감평가 42억6천4백만원 최저가(80%) 34억1천만원
- ★ [의료시설] 함평군 월야면 월거리 대지:11139㎡(3369,5평) 건물:5530,56㎡(1612,5평) 감평가 40억3천5백만원 최저가(70%) 28억2천4백만원
- ★ [근린주택] 목포시 옥암동 토지 : 555,7㎡(168,1평) 건물 : 1210,35㎡(366,1평) 감평가 15억9천8백만원 최저가(70%)11억1천8백5십만원
- ★ [숙박시설] 광산구 우산동 대지:627,8㎡(189,9평) 건물:2122,01㎡(641,9평) 감평가 35억7천만원 최저가 25억
- ★ [양계장] 함평군 월야면 양정리 대지:136695,78㎡(41350,5평) 건물:24737,02㎡(7482,9평) 감평가 62억7천2백만원 최저가(56%) 35억1천만원
- ★ [공장용지]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토지 : 37599㎡(1137,1평) 건물 : 2040,5㎡(617,3평) 감평가 14억8천8백만원 최저가(70%)10억4천2백만원

“상무지구·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양 보유”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